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487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4월 18일 (음력 3월 3일) 수요일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 오늘부터 돌입

“쿵히기냐 뒤집기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지사 후보 경선 결선이 오는 18~19일 이틀간 일정에 돌입한다.

김영록·장만채 예비후보가 득표활동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막판에 불거진 신정훈 예비후보의 특정 후보 지지선언과 선거법 위반 고발, 최대 표밭인 동부권 표심이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 전남지사 1차 경선 결과 정통관료 출신 김영록 예비후보와 교육행정가 출신 장만채 예비후보가 1,2위를 차지해 막판 결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

결선 투표는 오는 18~19일 양일간 권리당원 ARS 투표 50%와 여론조사 50%를 합산해 결정한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은 지지선언, 선거법 위반 고발, 동부권 표심 등 3대 주요 변수가 승부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신 후보가 지난 16

김영록·장만채 “내가 적임자” 민심·당심 어디로

지지선언·선거법고발·동부권표심 등 4대 변수

일 김 후보를 공식 지지하고 나서 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신 후보는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지낸 등 전남 중부권에 탄탄한 지지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자치분권연대와 농민단체 등의 지지를 받았다.

일남 김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것으로 보이지만, 27%가량의 신 후보 표가 어느 정도 김 후보쪽으로 갈지가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다.

전남 유권자의 40%가량 되는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표심의 향배도 관심이 쏠린다.

전남 남부권에 지지기반을 둔 김 후보와 중부권에 기반을 둔 신 후보의 연대가 전남 동부권 표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

도 나온다.

장 후보는 순천 등 동부권을 주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목할 대목이다.

동부권은 그동안 순천 출신 초대 허경만 지사를 배출한 이후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서부권 출신 전남지사들 지켜보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왔다.

막판에 불거진 김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장 후보는 “김영록 예비후보측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ARS(자동응답시스템) 녹음과일을 일관 유권자를 대상으로 전화로 전송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 놓은 상태다.

이에 김후보측은 “음성메시지 발송은 전남도 선관위 관계자의 검토를 받은 것이다”면서 “당연하게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면서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이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했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락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요 변수를 넘어 공천장을 거머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1차 경선에서 장 후보를 8%가량 앞선 김 후보가 탈락한 신 후보의 지지를 받아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선거법 위반 고발이나 동부권 표심 등이 어떻게 작용할지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1차 경선에서 김 후보는 40.98% 장 후보는 32.50%로 1·2위를 기록했으며 신 후보는 26.58%의 득표를 얻어 경선에서 탈락했다.

김정환 기자



해명

김흥국씨도 hkim 아니겠어요?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인 이재명 전 성남시장은 16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0번 말을 했다. 부인 김혜경씨의 영문 이름 약자와 같은 아이디를 쓰는 정의를 위하여@08_hkim 라는 트위터 계정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서다.

이전 시장은 한라디오 인터뷰에서 “부인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해당 아이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글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농담조로 같은 영문이나설이 성립하는 가수 김흥국씨를 언급했다.

이전 시장은 “아내는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정말로 오랫동안 분향소에서 며칠 밤샘 정도로 그 아말로 노빠에 가까운 사람이다”면서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했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가고 0번 것을 해서 자에게 득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김흥국씨도 hkim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 자료사진=뉴시스



한국노총전남본부 광양지역지부, 출근 노동자 대상 선전활동 전개



한국노총 전남본부(의장 이신원)와 광양지역지부 (의장 김성희)는 17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 걸쳐 포스코 출근 노동자를 대상으로 선전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선전활동에는 전남본부 관계자 및 광양지역 노조간부 등 50여명이 참가했다.

한국노총은 한국사회 2천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제1 노총으로써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목표로 현시대 화두이자 노동운동의 정신인 비정규직 철폐,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한국노총 소속 모든 노동조합은 해당 사업장내 계약직, 용역, 사내하청, 노동자 조직화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김성희 광양의장은 현장방문에서 “업종과 고용형태, 직급을 넘어 단결의 가치 아래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해 여기

노조 관계자 등 50여명
포스코 정문서 선전활동
20일까지 5개지역 방문

에 모인 노동조합 간부는 최선을 다하지 않고 말했다.

한국노총 전남본부는 20일까지 집중 선전활동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5개 지역지부 및 100인 이상 사업장을 방문하고 거점지역에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홍보물과 기념품을 배포하는 등 조직화에 나서고 있다.

최남규 기자

Pyongyang 2018
2018 평양 세계문화유산
공식 스폰서

두근두근

지속 가능한 청정에너지 개발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앞장서겠습니다

도시 속 조밀한 청정에너지
연료전지발전소

유기물의 광합작용을 이용한
광양바이오메스발전소(추진)

무한한 태양빛을 전기에너지로
태양광발전소

육상과 해상 모두를 이용한
풍력발전소

한국수력원자력 신재생에너지 사업현황

추진 인천연료전지, 청송풍력, 고흥풍력, 서남해상풍력, 삼랑진양수태양광

운영 강기연료전지, 노을연료전지, 부산연료전지, 한빛울라, 예천태양광, 고리태양광, 영월태양광, 고리풍력

한국수력원자력은 2005년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본격추진하며 대한민국 신재생에너지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행복과 경제성장이 함께 하는 내일의 희망력을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 한빛원자력본부